

집회서 영웅 찬양시 본문 전통에 관한 연구: 다윗 찬양시(집회서 47장 2-11절)를 보기로*

김정훈(부산장신대)

1. 들어가는 말

“시락의 지혜” 또는 “벤 시락의 지혜”라고도 불리는 “집회서”(Ecclesiasticus)는 개신교회에서는 외경으로 분류되었지만, 가톨릭교회는 제2경전으로 여겨 성경에 포함되었다.¹ 이 책은 그리스어 서문의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2A01069135)

1 그리스어 본문에서는 이 책의 제목이 필사본들에 따라 “시락의 지혜”(Σοφία Σεράχ, 소피아 세이라흐; Cod. B), “시락의 아들 예수의 지혜”(Σοφία Ἰησοῦ υἱοῦ Σεράχ, 소피아 예수 휘우 세이라흐; Cod. S., A.) 등이다. 그리스어 제목에서 지은이의 이름 끝에 히브리어에는 없는 자음 “χ”가 들어간 것은 이 고유명사를 그리스어식으로 인칭 변화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보기. Ἀκελδαμάχ(= אַכְלַדְמָאֵךְ, χωρίον αἵματος) 행 1:19, Ἰωσηφ(= יוֹסֵף) 눅 3:26 등. 신약성경의 이런 현상에 대해 참조. Blass/Debrunner/Rehkopf,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82001), §39, 4. 한편, 현존하는 히브리어 필사본 가운데 집회서를 시작하는 가장 첫 본문은 3장 6절이기에 실제 이 책의 히브리어 제목이 어떠한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필사본 B의 50장 27절에서 저자가 자신을 “시락의 아들 엘르아자르의 아들 예슈아”(יְשׁוּעַ בֶּן אֱלֵעָזָר בֶּן סִרְיָא, 예슈아 벤 엘르아자르 벤

기록을 바탕으로 대략 기원전 180년 무렵에 쓰였을 것으로 어렵잡을 수 있다.²

19세기까지 그리스어 본문만 존재해 온 집회서는 벤-시라 손자가 남긴 서문의 증거, 그리고 몇몇 랍비 문헌에서 인용되는 증거와 초대 교부인 오리게네스와 히에로니무스의 기록을 통해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만 하였다.³ 그런데 1896년에 스코틀랜드의 모험가인 루이스(Agnes Smith Lewis)와 깁슨(Margaret Dunlop Gibson)이 이집트 구카이로(Old Cairo) 벤-에즈라 회당의 게니자(genizah)에서 기원후 8세기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집회서 히브리어 필사본이 발견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여, 지금 집회서 히브리어 본문은 각각 A, B, C, D, E, F 그룹으로 분류하기에 이르렀다.⁴ 특히 쿨란 제2동굴과 마사다에서도 기원전 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집회서 필사본 단편들이 발견되었다.⁵ 그리하여 집회서 히브리어 본문은 지금까지 68% 정도 발견

시라)라고 일컫고, 51장 30절 이후에도 저자의 서명에도 이 글을 “시라의 아들 엘르야자의 아들 예슈아의 아들 시르온의 지혜”(חכמת שמעון בן ישוע בן אלעזר בן סירה)라고 되어 있다. 이를 줄여 “벤 시라”라고 부르기도 한다. 제목에 대해서는 참조. Patrick W. Skehan/Alexander A. Di Lella, *The Wisdom of Ben Sirā*, (AB 39; New York: Doubleday, 1997), 579-80. 한편, “집회서”라는 명칭은 이 책의 라틴어 제목인 “Ecclesiasticus”(교회/모임의 책)에서 비롯했는데,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키프리아누스(기원후 약 200-258년)의 글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이후에 이어온 전통이다. 참조. 김정훈 지음, 『칠십인역 입문』 (서울: 바오로딸, 2009), 101.

- 2 이는 번역자인 벤-시라의 손자가 번역 시기로 언급한 에우에르게테스(Euergetes) 2세(170[145]-116년 통치) 통치 38년째 되던 해를 바탕으로 한 추정이다. 저작시기와 관련된해서는 참조. Skehan/Di Lella, *The Wisdom of Ben Sirā*, 8-15.
- 3 랍비 문헌에 인용되는 집회서 본문과 관련한 정보는 Salomon Schechter, “The Quotations from Ecclesiasticus in Rabbinic Literature”, *JQR* 3, 4 (1891), 682-706를 참조하라.
- 4 집회서 히브리어 필사본의 발견과 편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Paul E. Kahle, *The Cairo Geniza*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²1960), 5-13; 알렉산더 아킬레스 피셔 지음/김정훈 외 옮김, 『구약성서 본문: 역사와 본문비평』 (서울: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2020), 55-56 등을 참조하라.
- 5 첫 번째는 2Q18 단편으로 베이에(M. Baillet)가 1962년에 출판했다. 두 번째는 1965년 샌더스(J. A. Sanders)가 펴낸 *The Psalm Scrolls of Qumran Cave 11(11QP^s)*에 나타난다.

되어 편집되기에 이르렀다.⁶

이에 따라 집회서 본문과 관련한 주된 연구는 본문의 진정성 논란에 집중되어 있었다.⁷ 게니자 본문이 발견된 직후, 일부 학자들은 이 본문이 진정성 있는 히브리어 본문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⁸ 결국 마사다에서 발견된 집회서 본문의 단편으로 어느 정도 히브리어 본문의 진정성은 인정받고 있지만,⁹ 여전히 히브리어 본문의 진정성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집회서 연구의 주제로 자리 잡고 있다.¹⁰

집회서 본문의 역사와 관련해서 주를 이루는 또 다른 연구 주제는 현존하는 필사본들과 번역본들, 그리고 본문들 사이에 나타난 이형을 연구하거나 본문을 재구성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¹¹ 이러한 작업은

여기서는 시편 138편 다음에 집회서 51장 13-20절과 30절 후반절이 기록되어 있다. 그 외의 히브리어 필사본으로는 마사다에서 발견된 것인데 1965년, 이는 아딘(Y. Yadin)이 편집하여 펴냈고 1982년에는 사이버(A. Scheiber)가 케임브리지 도서관에 소장된 테일러-쉐히터의 추가 모음집 (Additional Series collection)에서 발견한 것으로 집회서의 새로운 필사본과(F: Sir, 31:24~32:7) C 편집본 가운데 소실된 일부분을 발견되었다. 사이버의 연구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Skehan/Di Iella, *The Wisdom of Ben Sira*, 51-52를 참조하라.

- 6 집회서 히브리어 편집본은 Pancrattus C. Beentjes, *The Book of Ben Sira in Hebrew: A Text Edition of All Extant Hebrew Manuscripts and A Synopsis of all Parallel Hebrew Ben Sira Texts* (Leiden et al.: E. J. Brill, 1997)을 보라.
- 7 집회서 게니자 본문과 관련한 진정성 문제는 참조. Pancrattus C. Beentjes, "Reconstructions and Retroversions: Chances and Changes to the Hebrew Ben Sira Text," in *The Texts and Versions of the Book of Ben Sira: Transmission and Interpretation*, ed. Jean-Sébastien Rey/Jan Joosten, (Leiden · Boston: Brill, 2011), 23-35.
- 8 본문의 진정성 논란에 불을 붙인 대표적인 학자는 비켈(G. Bickell)과 마골리우스(D. S. Margoliouth)다. 비켈은 12장 10-11절과 51장 13-30절 분석을 통해 게니자에서 발견된 히브리어 본문이 사실은 시리아어 본문을 대본으로 한 히브리어 번역본이라 주장했다. 마골리우스는 집회서가 본래 그리스어 본문으로 시작했고 이후 페르시아어로 번역되었는데, 페르시아의 유대인이 이 본문을 히브리어로 번역했다는 역번역가설(retroversion hypothesis)을 주장했다. 진정성 논란과 학자들의 주장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참조. Pancrattus C. Beentjes, "Reconstructions and Retroversions", 23-35.
- 9 Solomon Zeltin, "The Ben Sira Scroll from Masada", *JQR* 56, 3 (1966), 185-190.
- 10 Skehan/Di Iella, *The Wisdom of Ben Sira*, 54
- 11 집회서의 본문비평과 관련한 문제는 Alexander Di Iella, *The Hebrew Text of Sirach: A Text-*

본문 사이에 나타난 충돌을 연구하여서 현존하는 본문 사이의 연대를 추정하는 일은 가능하지만, 본래 벤-시라가 집회서를 집필할 때, 사용했을 구약성경 본문이나 집회서의 독특한 구약 사용의 특징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 집회서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특히 집회서는 이스라엘의 영웅들을 언급하며 찬양하는 이른바 이스라엘의 “영웅 찬양시”(44:1-50:12)가 있는데, 여기서는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 34명과 다섯 집단(사사,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유다의 왕들, 열두 소예언자들)을 소개한다.¹² 이 본문과 구약성경의 연관성을 본문과 전통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주제는 그간 주목받지 못해 왔다. 그저 해당 본문을 주석하면서 관련 본문을 언급하는 정도였지,¹³ 언어적으로나 전통사(Traditionsgeschichte)¹⁴ 관점에서 구약성경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분석하는 데는 아쉬움이 남아 있다. 하지만 집회서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분명히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경우가 대

critical and Historical Study (Hague: Mouton & Co, 1966)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 12 집회서에 나타나는 영웅 찬양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천사무엘, “집회서의 이스라엘 영웅 찬양시”, 『한국기독교교신학논총』 40(1) (2005), 29-51을 참조하라. 그 밖에 영웅 찬양시와 관련한 국내 연구로는, 그 밖에 집회서와 관련한 국내 연구로는, 박장훈, “Ben Sira’s Use of the Adam Story in Gen 1-3”, 『구약논단』 26(3) (2020), 202-207; 임봉대, “집회서 48:17-22의 히스기야 터널에 관한 고찰: 히브리어 본문과 칠십인역 본문 비교”, 『성경원문연구』 46 (2020), 47-66 등을 들 수 있다.
- 13 가령, 참조. Georg Sauer, *Jesus Sirach/Ben Sira* (ATD Apokryphen Bd. 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0), 300-342; Jeremy Corley, *Sirach* (New Collegeville Bible Commentary;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13), 123-144; Skehan/Di Iella, *The Wisdom of Ben Sira*, 497-555; James L. Crenshaw, *Sirach* (The New Interpreter’s Bible 5; Nashville: Abingdon Press, 1997), 836-861 등.
- 14 본 논문에서 쓰는 방법론 가운데 “전통비평/전통사”(Traditionskritik/-geschichte)은 넓은 의미의 전승사(Überlieferungsgeschichte)에서 분화된 개념이며, 이는 이스라엘의 정신사에서 중요한 내용(traditum)의 특징을 분석하는 방법이며, 구두 전승의 전달과정(traditio)을 연구하는 좁은 의미의 “전승비평”(Überlieferungskritik)과 구분된다. 방법론에 대해서는, 김정훈 지음, 『구약주석 어떻게 할 것인가? 구약 본문의 이해와 주석을 위한 길잡이』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373-391 참조하라(전승비평은 비교, 347-367).

부분이며, 여기서 언급하는 내용과 구약성경 본문의 내용은 뚜렷한 공통점은 물론 차이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집회서의 영웅 찬양시를 연구하는 일은 구약의 본문과 전승이 중간기 시대에 어떻게 연결되었고 이해되었는지를 밝히는 데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영웅 찬양시 가운데서 다윗 찬양시(집회서 47:2-11)을 보기로 본문을 분석하고, 집회서의 저자가 활용했던 구약성경 전통의 특정 언어 표현을 분석하여 중간기 시대 구약성경 전통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다윗 찬양시(집회 47:2-11)의 본문과 그 전통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는 영웅 찬양시 가운데 다윗 찬양시(집회서 47:2-11)는 그리스어 본문과 더불어 히브리어 본문(MS B)도 남아 있다.¹⁵ 다윗 찬양시는 다윗의 왕위 등극 이야기(2-7절), 예배자이자 성전제의 창시자로서 다윗 이야기(8-10절), 그리고 다윗 언약 이야기(11절)를 다룬다. 우리는 우선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두 본문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두 본문을 분석한 뒤에 두 본문 너머에 있는 구약성경의 다윗 전통과 어떤 언어적이고 전통사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15 히브리어 본문은 Beentjes, *The Book of Ben Sira in Hebrew*, 83-84을 참조한다. 여기서 말 하는 히브리어 본문 Ms B는 21장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 차례 서로 다른 편집자들이 편집해서 출간했다. 이에 대해서는, Beentjes, *The Book of Ben Sira in Hebrew*, 14-16을 보라. 한편, 그리스어 본문은 Joseph Ziegler (ed.), *Septuaginta Vetus Testamentum Graecum Auctoritate Academiae Scientiarum Göttingensis editum. vol. XII, 2 Sapientia Iesu Filii Sirach* (Göttingen: Vasdenhoeck & Ruprecht, ²1980)을 참조할 수 있다.

[2절]

MS B	LXX
<p>כי כחלב מורם מקדש כן דוויד מישראל:</p>	<p>ὡσπερ στέαρ ἀφωρισμένον ἀπὸ σωτηρίου, οὕτως Δαυιδ ἀπὸ υἰῶν Ἰσραηλ.</p>
<p>참으로 성물로부터 떼어낸 기름처럼 이스라엘로부터 다윗이 그렇다.</p>	<p>화목제물로부터 떼어낸 기름처럼,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다윗이 그렇다.</p>

두 본문은 전반적으로 같은 내용을 진술한다. 구문 또한 비유와 확언의 구조로 짜여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두 본문은 같은 뿌리에서 파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은 그리스어 역본에는 없는 불변화사 “כי”(키, 참으로)로 시작한다. 이로써 히브리어 본문은 그리스어 본문보다 다윗 찬양시를 시작하는 진술의 어감이 한층 더 강조되었다. 이어지는 “기름”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στέαρ”(스테아르)는 칠십인역에서 거의 배타적으로 “חֶלֶב”(헬레브)의 대응어로 쓰이므로, 두 본문이 같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¹⁶ 그다음으로 히브리어 본문에서 쓰인 “מורם”(무람)은 어근 “רם”(룸)의 호팔(Hophal) 분사형으로 읽을 수 있는데,¹⁷ 일반적으로 이 낱말은 칼(Qal) 형으로 제사장 전통의 용어에서 제물 가운데 어떤 것을 구분하여 떼어내는 행위를 가리킨다.¹⁸ 본문에서처럼 호팔 형으로 쓰이면(출 29:27; 레 4:10), 칠십인역에서는 “ἀφαιρέομαι”로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의 본문에서는 “ἀφορίζομαι”로 옮겼다. 이 번역어는 이 낱말이 칼 형으로 쓰인 에스겔의 용례(겔 45:1, 13; 48:8[9]. 20)의 칠십인역 번역에서 찾아볼 수

16 칠십인역의 용례들은 참조. E. Hatch/H. A. Redpath, *Concordance to the Septuagint and the other Greek Versions of the Old Testament* (Clarendon Press 1897-1906; reprinted Grand Rapids: Baker Books, 1991), 1287b-c(이하 HR).

17 참조. Skehan/Di Iella, *The Wisdom of Ben Sira*, 525.

18 보기. 레 2:9; 6:8; 민 15:19; 18:19, 26, 28; 31:52 등.

있다. 어쨌거나 두 낱말의 대응 관계는 명확해 보인다. 하지만 이어지는 낱말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전치사 “מן” (민)과 여러 제사에서 구별하여 쓰이는 “성물”의 뜻으로 주로 쓰이던 “קָרָשׁ” (코데쉬)를 쓴 반면에, 칠십인역은 “σωτηρίον” (소테리온)을 쓴다.¹⁹ 이 낱말은 일반적으로 “구원”을 뜻한다. 하지만, 칠십인역에서는 종종 “מִלָּשׁ”의 대응어로 “(구원에 감사하는) 화목제물”의 뜻으로 쓰이는 데(출 20:24; 레 17:4; 암 5:22 등),²⁰ 여기서 바로 이 뜻으로 쓰였다. 아마도 이 번역은 히브리어 본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드러낼 것이다. 후반절은 그리스어 역본에 “υἱῶν” (휘온, 자손들)이 더 있는 점을 제외하면 사실상 일대일로 대응하는 본문이다.

이 구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선택받은 다윗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분되어 드러진 성물로 이해한다. 사실 이런 이해는 사무엘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 대신 제의 전통을 생각나게 하는 “מורם”의 히필 형(비교. 레 4:8, 10, 19)이 다윗 제왕 시편인 시편 89편 20(19)절에서 집회서의 본문과 같은 맥락에 쓰였다는 점은 흥미롭다.²¹ 그러므로 이 구절은 다윗 제왕 시편의 전통과 제의 전통의 용어가 결합한 형태로 여길 수 있겠다.

이 구절은 전치사를 제외하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본문이 일대일로 대응한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전반절과 후반절의 첫 낱말에 쓰인 전치사 “ל” (르)는 동사 “קחש” (사하크, 놀다, 장난치다)와 함께 쓰인 것이다(참조. 렘 15:17; 잠 8:30 등).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처럼”을 뜻하는 전치

19 비교. quisiasthri,ou 443.

20 이에 대해 참조. HR, 1332a-c; T. Muraoka,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Septuagint*, (Louvain et al.: Peeters, 2009), 668.

21 Skehan/Di Iella, *The Wisdom of Ben Sira*, 525; Crenshaw, *Sirach*, 849. 또한, Marko Marttila, *Foreign Nations in the Wisdom of Ben Sira* (Berlin/Boston: De Gruyter, 2012), 185.

[3절]

MS B	LXX
<p>לכפירים שחק כנדי ולרובים כבני בשן;</p>	<p>ἐν λέουσιν ἔπαιξεν ὡς ἐν ἐρίφοις καὶ ἐν ἄρνασιν προβάτων</p>
<p>사자들과 숫염소인 듯 (여기고) 그가 놀았다. 그리고 곰들과 바산에서 난 (양들)인 듯 (여기 고 그리하였다).</p>	<p>사자들 가운데서 숫염소들 가운데서인 듯 그 가 놀았다. 그리고 곰들 가운데서 어린 양 떼 가운데서인 듯 (그리하였다).</p>

사 “כ” (크)가 쓰였는데, 그리스어 역본에서는 각각 “ἐν”(엔: 안에서, 가운데서)과 “ὡς ἐν”(호스 엔: 안에서처럼)으로 옮겨졌다. 이는 번역 대본의 차이라기보다는 그리스어 번역자의 본문 이해를 반영하는 의역으로 보인다.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숫염소”가 단수로 쓰였는데, 그리스어 역본에서는 복수로 쓰였다. 이 또한 문맥을 고려한 의역이겠다. 그리고 후반 절 뒷부분에서 히브리어 본문에서 쓰인 “바산에서 난 (양들)”(בני בשן; 직역. 바산의 아들들)은 흔히 쓰이는 표현은 아니지만, 신명기 32장 14절에서 비슷한 맥락에서 쓰인 바 있으므로, 그런 어법을 전제하겠다.²² 반면에, 그리스어 역본에서는 “어린 양 떼 가운데서인 듯”(ὡς ἐν ἄρνασιν προβάτων)으로 옮긴 표현은 칠십인역의 번역 용례를 고려할 때, “הצאן ככבש”를 대본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²³

이 구절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사울 앞에서 했던 말을 생각나게 한다(삼상 17:34-36).²⁴ 하지만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사자에 해

22 스케한/디 렐라(Skehan/Di Iella, *The Wisdom of Ben Sira*, 524)는 이를 두고 “소들”을 일컫는다고 이해했지만, 신명기의 용례를 볼 때, 그리스어 역본처럼 양 떼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23 참조. 출 12:5; 대하 29:21; 욥 31:20; 사 11:6; HR, 159b.

24 참조. Corley, *Sinach*, 133.

당하는 낱말이 다르고(אָרִי, 아리, 삼상 17:34), 여기서는 사무엘서 본문에 서는 없던 숫염소가 등장하는 등을 볼 때, 사무엘서의 본문을 직접 인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다윗 전통에서 널리 쓰이던 특정 언어 표현을 여기서 시문 형태로 변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절]

MS B	LXX
<p>בנעוריו הכה גבור ויס[.....]לם: בהניפו ידו על קלע וישבר ת[....]רת גלית:</p>	<p>ἐν νεότητι αὐτοῦ οὐχὶ ἀπέκτεινεν γίγαντα καὶ ἐξήρην ὀνειδισμὸν ἐκ λαοῦ ἐν τῷ ἐπάραι χειρα ἐν λίθῳ σφενδόνης καὶ καταβαλεῖν γαυρίαμα τοῦ Γολιαθ:</p>
<p>그의 젊은 시절에 거인을 치고, 그가 옛[적의(?) ... 제]거했다. 그때 물매 위로 그의 손을 흔들어서, 골리앗의 명[성(?)]을 깨뜨렸다.</p>	<p>그의 젊은 시절에 거인을 죽이고, 백성들에게서 모욕을 없애지 않았던가? 그때 그는 물맷돌 든 손을 쳐들어서, 골리앗의 교만을 넘어뜨렸다.</p>

이 구절의 히브리어 본문 일부분은 훼손되어 있어 완벽하게 재구성할 수 없다. 그런데도 남아 있는 본문들을 바탕으로 충분히 그리스어 역본과 비교할 수 있다. 이 구절에서는 앞선 구절에서 골리앗과 일대일 전투 직전에 한 다윗의 말을 생각나게 하는 진술에 이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삼상 17:32-51)를 시문으로 전해준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본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문장 구성이다. 히브리어가 평서문으로 서술하는 반면에 그리스어 본문은 부정어 “οὐχὶ”(우키)가 들어간 수사의문문(rhetorical question)으로 구성되어 한층 더 생생한 진술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스어 본문의 동사 “ἀποκτείνω”(아포크테이노, 죽이다)는 칠십인역에서 “הרג” (하라그)나 “מות” (무트)의 번역어로 쓰이기는 하지만, 몇몇 용례에서 본문에서처럼

“נכה”(나카)의 번역어로 쓰이기도 한다(수 7:5; 101:26, 41; 욥 1:15, 17).²⁵ 특히 이 번역어가 이 구절이 말하는 문맥인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쓰인 점은 흥미롭다(비교. 삼상 17:26).

히브리어 본문의 둘째 문장은 훼손이 심하다. 다만 동사는 필자의 견해에 그리스어 번역을 바탕으로 “סור”(수르)의 히필형인 “סור” (바아세르, 그리고 그가 제거하였다)로 복원해 볼 수 있겠다. 이 동사는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본문과 같은 문맥에서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낱말은 소실되었고, 마지막 낱말은 그리스어에서는 “ἐκ λαοῦ”(에크 라우, 백성들에게서)로 옮겼는데, 히브리어 본문에는 “ל[...]” 두 글자만 남아 있다. 그래서 이를 복원하면 “עלם”(올람, 옛적)이며, 이는 원래 본문 “עם”(암, 백성)이 훼손된 전승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²⁶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이 더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lctio difficilior) 본문비평 관점에서 그리스어 본문이 우월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셋째 문장도 전반적으로 같은 그림을 그리지만, 구체적인 표현 방식은 조금씩 다르다. 먼저 동사를 보면, 그리스어 역본에서는 “ἐν τῷ ἐπάραυ”(엔 토 에프라이, 그가 쳐들었을 때)로 비교적 단순하게 서술하였다.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흔들다”는 뜻의 동사 “נרף”(누프)의 히필 부정사형이 전치사와 함께 쓰였다(בהניפו). 그런데 이 동사는 구약 성경에서 위협의 표시로 손을 흔드는 모습에도 쓰이지만,²⁷ 특히 제사에 바치는 제물을 흔드는 요제의 행위를 그리는 전문 용어로 쓰인다는 점은 흥미롭다.²⁸ 이로써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물매를 돌리는 모습과 제사장이 제물을 흔들어 요제를 드리는 모습을 중첩하는 효과가 있겠

25 참조. HR, 135a-136a.

26 Skehan/Di Iella, *The Wisdom of Ben Sira*, 524.

27 참조. 사 11:15; 19:16; 숙 2:13; 욥 31:21; 집회 36:3 등.

28 참조. 출 29:26; 레 7:30; 8:29; 9:21; 10:15; 14:12, 24; 23:11, 20; 민 5:25; 6:20 등.

다. 이어서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יָדוֹ” (야도, 그의 손)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리스어 번역에서는 “그의”에 해당하는 번역어가 없다. 그리고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돌을 던지는 물매(טָקָה, 켈라)만 언급하는데, 그리스어 본문에서는 물매(σφενδόνη, 스펜도네)와 더불어 돌(λίθος, 리토스)까지 언급해서 좀 더 구체화했다.

마지막 문장도 같은 진술의 표현이 조금 차이 난다. 먼저 동사를 그리스어 역본에서는 “καταβάλλω” (카타발로, 쳐서 넘어뜨리다)이 낱말은 대개 칠십인역에서 “넘어지다”는 뜻의 “נָפַל” (나팔)을 어근으로 하는 변화형의 번역어로 쓰인다. 그러므로 사무엘서의 본문 전통(삼상 17:49)에서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돌을 맞고 쓰러지는 장면에서 쓰인 히브리어 본문 “וַיִּפֹּל” (바이포, 그가 쓰러졌다)²⁹이 반영된 꼴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히브리어 본문의 “וַיִּשְׁבֹּר” (바이쉬보르, 그가 깨뜨렸다)는 사무엘서의 본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이어지는 목적어와 연관되어 좀 더 생생한 심상을 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문제는 이어지는 낱말이 첫 글자와 마지막 두 글자만 남아 있다는 점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그리스어 본문의 번역과 같은 맥락에서는 물론, 일대일 대응어로 칠십인역에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תִּפְאָרָה” (티프아라, 영광, 자랑, 명성)의 연계형으로 복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구절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본문 모두 사무엘서에서 전하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그리스어 본문이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반면에, 히브리어 본문은 2절에서처럼 제사장 전통의 표현을 써서 다윗의 모습을 이상화하려 했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29 비교. 칠십인역 “καὶ ἔπεσεν” (카이 에페센, 그가 쓰러졌다).

[5절]

MS B	LXX
<p>כי קרא אל אל עליון ויתן בימינו עז: להדף את איש יודע מלחמות ולהרים את קרן עמו:</p>	<p>ἐπεκαλέσατο γὰρ κύριον τὸν ὑψιστον, καὶ ἔδωκεν ἐν τῇ δεξιᾷ αὐτοῦ κράτος ἐξᾶραι ἄνθρωπον δυνατὸν ἐν πολέμῳ ἀνυψῶσαι κέρας λαοῦ αὐτοῦ.</p>
<p>왜냐하면 그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분은 그의 오른손에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전투에 숙련된 사람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의 뿔을 높였다.</p>	<p>왜냐하면 그가 지존하신 주님께 부르짖었고, 그분이 그의 오른손에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전투에 능한 사람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의 뿔들을 높였다.</p>

이 구절은 두 본문이 거의 일치한다. 첫 문장에서는 신명이 차이가 나는데, 히브리어 본문이 좀 더 넓은 개념의 “אל” (엘, 하나님)을 쓴 반면에, 그리스어 번역에서는 주로 신명사문자(Tetragrammaton)의 번역어로 쓰이는 “κύριος” (퀴리오스, 주님)로 옮겼다. 두 표현이 모두 구약성경에서 쓰이므로³⁰ 어느 것이 더 오래된 본문인지 밝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עליון”만 쓰이는 것이 구약성경에서는 훨씬 더 익숙하므로,³¹ 지금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본문 모두 거기서 제각각 파생했을 가능성도 추측해 볼 수 있다.

둘째 문장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본문이 일대일로 대응한다. 다만 마지막에 히브리어 “עז” (오즈, 힘)을 “κράτος” (크라토스)로 옮긴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이 대응은 거의 시편(58[59]:9; 61[62]:11; 75[76]:3; 85[86]:16; 88[89]:9; 89[90]:11)과 중간기의 문헌(2에스 8:22)에서만 찾아

30 אל עליון: 창 14:18-20, 22; 시 78:35; יהוה עליון: 시 47:3.

31 민 24:16; 32:8; 삼상 2:10; 삼하 22:14; 사 14:14; 시 18:14; 21:8; 46:5; 50:14; 73:11; 77:11; 78:17; 87:5; 91:1, 9; 107:11; 애 3:35, 38; 집회 6:37; 41:4.

볼 수 있다.³² 그러므로 그리스어 본문의 번역어는 시편에 영향을 받은 표현으로 여길 수 있다.

셋째 문장에서는 골리앗을 일컫는 표현에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본문이 서로 다르다. 골리앗을 전쟁에 능숙한 장수로 표현하는 것은 분명히 사무엘상 17장 33절의 직접적인 영향일 것이다.³³ 사무엘서에서는 골리앗을 “אִישׁ מִלְחָמָה” (이쉬 밀하마, 전쟁의 사람; 칠십인역: ἀνὴρ πολεμιστής, 아네르 폴레미스테스)로 표현한다. 아마도 집회서의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본문 모두 이 전통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더 명확하게 이해되도록 제각각 “עָרֶדָה” (요데아, 아는, 익숙한)와 “δυνατὸν ἐν” (뒤나스톤 엔, ~에 능한)을 덧붙여서 구체적으로 표현했다고 여겨야 할 것이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본문이 거의 일치하는 마지막 문장에 있는 빨은 어떤 동물의 힘을 뜻하며, 어떤 사람이나 백성의 힘을 상징하는 그림 언어다. 특히 이 표현이 시편에서 다윗 전통과 관련해서 쓰이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시 18:3; 89:18; 132:17).³⁴ 그리고 그리스어 본문에서 “높이다”는 뜻으로 쓴 “ἀνυψώω” (안웁소오)는 칠십인역에서 히브리어의 대응어로는 거의 쓰이지 않으며,³⁵ 본문에서 쓰인 동사의 어근 “רָם” (룸)의 대응어로는 두 번밖에 쓰이지 않는다(삼상 2:7; 시 112[113]:7). 반면에 칠십인역에서 이 낱말의 용례 대부분을 집회서가 차지한다.³⁶ 그러므로 집회서 그리스어 본문 번역자는 히브리어 본문과 같은 대본을 보

32 HR, 784a-b. 유일한 예외는 욥 12:16이다.

33 참조. Skehan/Di Iella, *The Wisdom of Ben Sira*, 525.

34 한편, 비교. 삼하 2:1; 시 112:9; 148:14. 참조. Skehan/Di Iella, *The Wisdom of Ben Sira*, 526; Georg Sauer, *Jesus Sirach/Ben Sira*, 321.

35 참조. HR, 112b-c.

36 참조. 집회 1:19; 4:11; 7:11; 11:1, 13; 13:23; 20:28; 21:20; 24:13, 14(×2); 28:10; 31(34):17; 36(33):9, 11; 38:3; 40:26; 44:21; 45:6; 46:20; 47:5, 11; 49:12; 51:9. 그 밖의 용례는 비교. 2에스 4:12(jwx); 단(LXX) 4:19; 5:1, 2.

있지만, 자신이 즐겨쓰는 표현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구절은 사무엘서 17장 33절에서 골리앗을 일컫는 표현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과 싸웠다는 전통(삼상 17:45-47)에서 출발해서 시편의 언어를 덧입혀 시문으로 발전했다.³⁷

[6절]

MS B	LXX
<p>על כן ענו לו בנות ויכנוהו ברבבה: בעשותו צניף נלחם ומוסביב הכניע צר:³⁸</p>	<p>οὕτως ἐν μυριάσιν ἐδόξασαν αὐτὸν καὶ ἤγεσαν αὐτὸν ἐν εὐλογίαις κυρίου ἐν τῷ φέρεσθαι αὐτῷ διάδημα δόξης· (참조. 7절)</p>
<p>따라서 그를 위해서 딸들이 노래 불렀다. 그리고 그를 “만만”이라고 일컬었다. 그는 터번을 두르고 전투를 치렀다. 그리고 그는 둘러싼 대적을 굴복시켰다.</p>	<p>그렇게 사람들은 “만만”이라고 그를 칭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복 받을 만하다고 칭찬하였다. 그에게 영광의 터번이 씌워졌을 때. (참조. 7절)</p>

기본적으로 두 본문은 같은 전통을 진술한다. 이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과 치른 전투에서 많은 전공을 거두어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이라는 칭송을 받고(삼상 18:7, 21:12; 29:5),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때(삼하 5:3)까지의 다윗 전통이다. 그런데 두 본문은 본문의 차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초점 또한 다르다.

37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전통의 또 다른 수용은 칠십인역과 쿠파란 성경 본문(11Q5)에 남아 있는 시편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참조. 김정훈, “시편 151편의 11Q5와 칠십인역 본문 자료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29(2), 「구약논단」 29(2), 9-40.

38 “둘러싸다”를 뜻하는 동사 어근 “סבב” (사바브)가 히필 분사형으로 쓰일 때, 구약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מְסַבֵּב” (메세브)가 쓰인다. 그런데 여기서는 규칙 동사의 변화형처럼 “מֹסְבִיב” (마스비브)로 쓰이는데, 이런 형태는 쿠파란 성경 필사본에서 더러 찾아볼 수 있다: 신 25:19(4Q34); 사 42:25(1QIsa^a); 겔 36:4(Mas1d); 욥 4:11, 12(Mur88) 등. 이에 대해 참조. Martin G. Aegg, Jr. et al. (eds.), *The Dead Sea Scrolls Concordance. Vol. 3 The Biblical Texts from the Judean Desert* (Leiden/Boston: Brill, 2010), 500.

먼저 두 본문 모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은 만만이로다”의 전통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히브리어 본문이 “על כן”(알 켄,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반면에 그리스어 본문은 “οὕτως”(그렇게)로 시작하는데, 이는 그리스어 본문이 “כן”만을 대본으로 전제한다고 여길 수 있다. 서로 어순도 다른 이 부분의 첫 동사에서 본문 전통은 완전히 갈리는데, 히브리어 본문(ענה, 아나, 노래하다)과 그리스어 본문(δοξάζω, 독사조, 기리다, 칭찬하다)이 칠십인역에서 한 번도 대응어로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 그 증거다.³⁹ 히브리어 본문의 동사는 이 전통과 관련한 본문에서 직접 쓰였다(삼상 18:7; 21:12; 29:5). 사무엘서 칠십인역은 여기서 모두 “ἔξαρχω”(엑사아르코, 선창하다)를 쓰는데, 이 번역어는 승전의 맥락에서 공동체의 축하 노래를 앞에서 주도하는 맥락에서 자주 쓰였다(출 15:21; 32:18; 민 21:17 등). 그러므로 집회서의 번역자는 이런 전통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번역했다. 그리스어 본문이 이 전통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데 비해, 히브리어 본문은 노래 부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만만”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었다(הַמַּנְמָנִים, 킨나)는 문장을 따로 표현한다. 이 동사는 구약성경에서 4번밖에 쓰이지 않으며(사 44:5; 45:4; 욥 32:21, 22), 다윗 전통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히브리어 본문 저자의 독자적인 저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스어 본문의 둘째 문장은 히브리어 본문과는 차이가 크며, 이 또한 일반적인 축복 찬양의 진술로 다윗 전통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이 문장에 이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그 신분을 드러내는 터번(διάδημα, 디아테마)⁴⁰을 쓰는 장면을 그리는 전치사구가 이어진다. 하지만, 본문의 언어 표현은 사무엘서보다는 이사야 62장 3절과 더

39 참조. HR, 343b-344a;
 40 참조. Muraoka, Lexicon of the Septuagint, 150.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의 칠십인역에서도 이 낱말이 쓰이면서, 흥미롭게도 우리가 살피는 6절의 히브리어 본문에서 쓰인 “קִנְיָן” (차니프)의 번역어이기 때문이다. 구약성경에서 이 낱말은 중동에서 남자(욥 29:14)나 여자(사 3:23)의 머리에 쓰던 수건, 또는 대제사장(속 3:5)이나 임금(사 62:3)이 쓰던 터번을 뜻하기도 한다. 칠십인역에서는 이 낱말이 “κίδαρις” (키다리스)로도 옮겨진다.⁴¹ 그리스어 본문이 여기서 다윗이 임금이 된 대관식의 분위기를 강조한다면, 히브리어 본문은 임금의 터번을 쓰고 전투에서 용맹스럽게 싸워 대적을 굴복시키는 모습을 강조한다. 이것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뒤에 주변 나라들, 곧 모압(삼하 8:2), 아람(삼하 8:5-12), 에돔(삼하 8:14), 암몬(삼하 10:1-14:11:1) 등을 정벌한 이야기를 요약한다. 어쨌거나 두 본문은 다르게 분화했지만, 이사야서 62장 3절에 직접 영향을 받은 “터번”(קִנְיָן/διάδημα)이라는 낱말에서 시작한 것만은 매우 개연성이 커 보인다.

[7절]

MS B	LXX
(참조. 6절) ויתן בפלשתים ערים ועד היום שב[.....]ק	ἐξέτριψεν γὰρ ἐχθρούς κυκλόθεν καὶ ἐξουδένωσεν φυλιστιμ τοὺς ὑπεναντίους ἕως σήμερον συνέτριψεν αὐτῶν κέρας
(참조. 6절)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두었다. 오늘날까지 [그들의 뿔]을 부서뜨[렸다.]	왜냐하면, 그가 에워싼 원수들을 무찔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대적하던 블레셋 사람들을 경멸했다. 오늘날까지 그들의 뿔을 부서뜨렸다.

41 비교, T. Muraoka, *A Greek//Hebrew/Aramaic Two-Way Index to the Septuagint* (Louvain et al.: Peeters, 2010), 326; Muraoka, *Lexicon of the Septuagint*, 397.

그리스어 본문 이 구절의 첫 문장은 히브리어 본문 앞선 구절의 마지막 문장과 대체로 상응하는 내용을 전한다. 하지만 이어지는 문장은 “블레셋 사람들”과 “뿔을 부서뜨리다”는 두 상응점 외에는 진술이 다소 다르다.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블레셋을 완전히 정벌한 것이 다윗이었는데(삼하 5:17-25; 8:1; 21:15-22), 본문은 바로 이 전통을 전제한다.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의 첫 문장부터 그리스어 본문과 다른 전통을 보여준다. 사실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벌하였다고 진술하지만, 본문에서처럼 그곳에 성읍들을 새로 지었다는 진술은 없다. 그러므로 이는 집회서 저자의 독자적 진술로 여길 수 있다. 반면에 그리스어 본문은 블레셋 정벌의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 쓰인 동사 “ἐξουθενώω”(경멸하다)도 다윗 전통과는 직접 상관이 없는 일반적인 진술이다. 그리스어 본문에서 말하는 “ὑπεναντίους”(투스 휘프 에난티우스, 대적하던)의 히브리어 대본을 “צרים”(차림, 대적들)로 보고, 히브리어 본문이 “ערים”(아림, 성읍들)으로 훼손되었다고 보는 견해⁴²는 흥미롭지만, 동사 차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므로 완벽한 추정이 될 수 없다. 더구나 히브리어 본문이 다윗 전통에서 찾아볼 수 없더라도, 정벌 후에 성읍 건축은 충분히 수궁할 수 있는 진술이다.

마지막 문장은 두 본문이 일치한다. 이 구절에서 쓰이는 “오늘날까지”는 특정한 시점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지속성을 가리키는 구약성경의 일반적 관용구를 빌려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⁴³ “뿔을 부서뜨렸다”는 상징적인 표현도 권력의 멸망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비교. 렘 48:25; 시 75:11[10]; 애 2:3).

42 Marttila, *Foreign Nations*, 188.

43 참조. Skehan/Di Iella, *The Wisdom of Ben Sira*, 526.

결국 이 구절은 블레셋 정벌과 관련한 다윗 전통을 모티브로 자유롭게 서술한 본문으로 여길 수 있다.

[8-10절]

MS B	LXX
<p>8 בכל מעשהו נתן הודות לאל עליון (...) בוד: 711 בכל לבו אוהב עושהו 9c ובכל (...) : 10a (...) ל (...) : 10b (...) שנה: 9a הכין ננינות שיר ל (...) : 9b וק (...) ל (...) ליום תיקן: נבל קול מזמור הנעים 10c בהל (...) ת שם קדשו 10d לפני בק (...) ירין משפט {מקדש}:</p>	<p>8 ἐν παντί ἔργῳ αὐτοῦ ἔδωκεν ἐξομολόγησιν ἀγίῳ ὑψίστῳ ῥήματι δόξης· ἐν πάσῃ καρδίᾳ αὐτοῦ ὕμνησεν καὶ ἠγάπησεν τὸν ποιήσαντα αὐτόν. 9c καὶ καθ' ἡμέραν αἰνέσουσιν ἐν ὧδαῖς αὐτῶν. 10a ἔδωκεν ἐν ἑορταῖς εὐπρέπειαν 10b καὶ ἐκόσμησεν καιροὺς μέχρι συντελείας 9a καὶ ἔστησεν ψαλτωδοὺς κατέναντι θυσιαστηρίου 9b καὶ ἐξ ἡχοῦς αὐτῶν γλυκαίνειν μέλη, 10c ἐν τῷ αἰνεῖν αὐτοὺς τὸ ἅγιον ὄνομα αὐτοῦ 10d καὶ ἀπὸ πρωΐας ἠχεῖν τὸ ἅγιασμα.</p>
<p>8 자신의 모든 일 가운데서 그는 지존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말씀으로 찬양을 드렸다. 다윗은 자기 온 마음으로 그는 자신을 지으신 분을 사랑했다. 9c 그리고 모든 [...] : 10a [...] : 10b [...] : 9a 그는 현악기들을 세워서 노래를 [...]하도록 하였다. 9b 그리고 [...]들의 소리를 짓는다. 하프, 아름다운 연주 소리 10c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미할 때, 10d 아[침]이 (밝기) 전에 성소가 환호할 것이다.</p>	<p>8 자신의 모든 일 가운데서 그는 거룩한 지존자에게 영광의 말씀으로 찬양을 드렸다. 자기 온 마음으로 그는 찬양하였고, 자신을 지으신 분을 사랑했다. 9c 그리고 날마다 그들의 노래들로 찬미하였다. 10a 그는 절기들에 아름다운 모습을 마련해주었다. 10b 그리고 그는 시기를 완전하기까지 정돈하였다. 9a 그리고 그는 노래하는 사람들을 제단 앞에 두었다. 9b 그래서 그들의 소리로부터 노랫가락이 달콤하게 들리도록. 10c 그들이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미할 때, 10d 이른 아침부터도 성소가 울리도록.</p>

이 본문은 찬양자로서 다윗의 모습을 강조한다. 전통사 관점에서 이 본문은 역대상 16: 23장과 연관된다.⁴⁴ 여기서 히브리어 본문은 훼손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필사자나 수정자가 난외에 세 차례나 수정 본문을 써넣었다. 그러니 본문 전승이나 형태에 문제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칠십인역 필사본에 있는 그리스어 본문은 전승 과정에서 순서가 뒤섞인 것으로 여기고 재구성하는 것이 보통이다.⁴⁵

8전반절에서는 하나님을 일컫는 용어에서만 차이를 보인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לשׁ**” (엘, 하나님)으로 쓴 곳에서 그리스어 본문은 “**ἅγιος**” (하기오스, 거룩한 분)로 옮긴다. “지존자”(יְיָ־עֶלְיוֹן/ὁ ὑψίστος)와 이 낱말이 구약성경에서 함께 쓰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⁴⁶ 그리스어 본문은 독자적인 변형으로 여길 수 있겠다. 어쨌거나 다윗이 “지존하신”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전통은 사무엘서보다는 다윗 시편 전통에서 찾아볼 수 있는 표현이다(시 9:3[2]; 7:18[17]; 57:3; 비교. 92:2 등). 개별 시편의 다윗 저작의 문제를 넘어 이런 시편의 특정 언어 표현이 집회서의 저자가 이 구절을 저작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8후반절에서는 히브리어 본문 필사본의 난외주에 필사자, 또는 수정자가 주어 “다윗”이 따로 써넣었다는 점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물론 이것은 이차적인 수정이겠다. 그리스어 본문은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는 “**ὕμνέω**” (hymnēō, 찬양하다)가 더 있는데, 이 또한 그리스어 본문 번역자가 찬양가로서 다윗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들어간 추가 본문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다윗 전통의 관점에서 다윗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은 역대기의 특정 언어 표현으로

44 John G. Snaith, *Ecclesiasticus* (The Cambridge Bible Commenta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4), 234.

45 여기서는 히브리어 본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그리스어 본문 순서를 따른다. 참조. Skehan/Di Iella, *The Wisdom of Ben Sira*, 523-524; Sauer, *Jesus Sirach/Ben Sira*, 319-320; Corley, *Sirach*, 134 등.

46 참조. *HR*, 1420b-1421a.

여길 수 있다(대상 16:4-6; 23:5).⁴⁷

8절의 히브리어 본문은 마지막에 “그리고 모든[...]”으로 시작하는 구절이 더 있는데, 그 이후는 훼손되어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런데 현재 전해지는 그리스어 본문의 필사본들에는 해당 부분이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리스어 본문의 9c절이 이 자리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여 본문을 재구성한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본문 8절 맨 마지막에 남아 있는 “그리고 모든”은 그리스어 본문에서 “그리고 날마다”(καὶ καθ’ ἡμέραν)로 번역한 자리에 “מִכֹּל יוֹמִים” (브콜-욘; 참조. 시 [139]140:3; 비교. ὅλην τὴν ἡμέραν)이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본문은 10전반절로 재구성한다. 그런데 이 부분의 히브리어 본문은 매우 심하게 훼손되어 재구성할 수 없다. 그리스어 본문만 보자면, 10a절에서는 다윗이 절기들을 아름답고 성대하게 마련해서 치른 모습을 그린다. 여기서 쓰인 “절기”(ἑορτή, 헤오르테)는 구약성경에서 주로 “חַג” (하그)의 번역어로 쓰이지만, “מוֹעֵד” (모에드)의 번역어로도 쓰인다.⁴⁸ 그런데 전자가 좀 더 포괄적인 구약성경의 절기를 가리킨다면, 후자는 구약성경에서 “안식일, 초하루”와 더불어 쓰이는 경향이 있다. 특히 두 낱말과 함께 쓰이는 용례는 포로기 이후의 본문에 배타적으로 집중하여 그 쓰임새의 유래를 추정할 수 있다.⁴⁹ 다윗 전통과 관련해서는 후자의 번역어로 역대상 23장 31절에서 쓰였다. 이 구절에서 가리키는 다윗 전통은 분명히 집회서의 이 본문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역대상 25장에서 다윗은 성전 찬양대를 조직한 것으로 보도되는데, 그에 따라 집회서 본문은 9전반절과 10후반절을 이어서 그 전통

47 참조. Skehan/Di Iella, *The Wisdom of Ben Sira*, 526; Corley, *Sirach*, 134.

48 구체적인 용례들은 참조. HR, 503a-b, 전자는 (1), 후자는 (3).

49 참조. 대상 23:31; 대하 3:5; 8:13; 31:3; 느 10:34. 비교. 안식일과 더불어: 겔 44:24; 레 23:4, 37, 44; 초하루와 더불어: 민 10:10; 사 1:14; 스 3:5.

을 반영하여 배열한다. 9a절은 히브리어 본문이 일부 훼손되었지만, 그리스어 본문과 대체로 같은 진술을 한다. 그리스어 본문을 시작하는 동사(ἔστησεν)에 해당하는 본문은 히브리어 본문에서 난외에 추가되었다(וַיִּשְׁתָּא). 그러므로 히브리어 본문의 필사자나 수정자는 첫 필사 때 빠뜨린 본문을 그리스어 본문과 같은 전통의 본문을 바탕으로 수정했다고 볼 수 있겠다. 히브리어 본문에 이어지는 “נְיִנוֹת” (느기노트, 현악기)는 그리스어 본문에는 없다. 왜냐하면, 이 낱말은 칠십인역에서 “κithάρα, ὕμνος, ψαλμός, ψαλτήριον, ᾠδή” 등으로만 번역되며,⁵⁰ 그리스어 본문에 있는 “ψαλτωός” (프살토도스, 성전성가대)는 포로기 이후 본문에서 히브리어 본문에서 이어지는 “שיר” (쉬르, 노래)와 연관된 어근을 옮기는 말이기 때문이다.⁵¹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필펠(Pilpel) 분사형으로 쓰이는 점을 고려할 때,⁵² 히브리어 본문이 앞선 낱말과 함께 수정되었을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다. 이어지는 히브리어 본문은 자음 “ל” 만 알아볼 수 있지만, 그리스어 본문을 바탕으로 “לְפָנֵי מִזְבֵּחַ” (리프네 미즈베아흐)로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9b절부터는 다윗이 성전성가대를 조직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런데 9b절은 히브리어 본문의 훼손이 심하며, 특히 난외주가 복잡하게 추가되어 있다. 히브리어 본문의 첫 낱말은 아마도 그리스어 본문을 바탕으로 “그리고 소리”(וקול, 브콜)로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둘째 낱말은 훼손되어 무슨 낱말인지 알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어 본문에는 해당하는 낱말이 없다. 그리스어 본문의 부정사

50 참조. Muraoka, Index to the Septuagint, 271.

51 대상 6:33(18); 9:33; 13:8; 15:16, 19, 27; 대하 5:12; 20:21; 29:28; 25:15.

52 참조. 성전성가대 직책으로는, 대상 6:178; 15:19;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는, 스 2:41, 70; 7:7; 10:24; 느 7:1, 44, 73; 10:29, 40; 11:22; 12:28, 42, 45-47; 13:5, 10; 대상 9:33; 15:16, 19, 27; 대하 5:12; 20:21; 23:13; 35:15 등.

“*γλυκαίνειν*”(글뤼카이네인, 달콤하게 하다)은 칠십인역에서 대개 해당하는 어근 “*מתק*”과 연관한 낱말로 옮겨진다.⁵³ 그런데 이 낱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본문의 “*תִּיק*”은 동사로 여겨지는데, 그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아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 낱말의 어근은 “*תקן*”(타칸, 곧게 하다, 잠언, 노래 따위를 짓다)으로 보아야 하는데, 성경 히브리어에서 본문과 같은 형태로는 쓰이지 않는다. 다만 완전서법(*scriptio plena*)으로 쓴 피엘(*Piel*) 형으로 보는 견해가 수용할 만하다(비교. 전 7:13; 12:9).⁵⁴ 이렇게 볼 때, 두 자음을 공유하는 두 본문은 한쪽이 달라졌을 것으로 여길 수 있다. 그리스어 본문은 끝났지만, 히브리어 본문 난외에는 “하포”(נבל, 네벨)가 먼저 추가되었고, 그 옆에 세로로 “아름다운 연주 소리”(הנעים מזור קול, 콜 미즈모르 하느임)가 더 기입되었다. 아마도 이것은 그리스어 본문에서 “성전성가대”로 표현한 것을 히브리어 본문은 앞선 구절의 추가 본문에서부터 이 성전 음악이 현악임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한 결과일 수 있다.⁵⁵

10후반절은 히브리어 본문과 그리스어 본문이 대체로 일치한다. 10c절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참조. 레 20:3; 겔 36:20; 암 2:7)을 찬양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그려준다. 그런데 10d절에서는 청각 그리스어 본문에서는 청각적 심상으로 그린다. 다만 히브리어 본문의 첫 필사자는 여기서 “성소”를 “*משפֶּט*”(미쉬파트, 재판, 공의)로 잘못 필사하였고, 이것을 다시 “*מִקְרֶשׁ*”(믹다쉬)로 고쳤다. 이 구절은 전반적으로 다윗 전통의 특정 언어 표현을 반영하기보다는 집회서 저자의 저작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53 출 15:25; 욥 20:12; 21:33; 시 54(55):14; 잠 24:13.

54 참조. W. Gesenius,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Kiel: Springer, 182013), 1455–1456.

55 이런 견해는 참조. Skehan/Di Iella, *The Wisdom of Ben Sira*, 524.

[11절]

MS B	LXX
<p>וַיִּי הַעֲבִיר פִּשְׁעוֹ [...] וַיִּרְם לְעוֹלָם קִרְנוֹ: [...] תֵּן לוֹ חֶק מִמַּלְכוּת וְכִסְאוֹ הַכִּיִן עַל יְרוּשָׁלַם:</p>	<p>κύριος ἀφείλεν τὰς ἀμαρτίας αὐτοῦ καὶ ἀνύψωσεν εἰς αἰῶνα τὸ κέρασ αὐτοῦ καὶ ἔδωκεν αὐτῷ διαθήκην βασιλείων καὶ θρόνον δόξης ἐν τῷ Ἰσραηλ.</p>
<p>여호와가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그의 뿔을 영원토록 높이셨다. [...] 그에게 왕국의 규례를 [...] 주]셨다. 그리고 그의 보좌를 예루살렘 위에 굳건하게 하셨다.</p>	<p>주님이 그의 죄들을 없애셨다. 그리고 그의 뿔을 영원토록 높이셨다. 그리고 그에게 왕의 언약을 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영광의 왕관을.</p>

이 구절에서는 사무엘하 11-12장을 전제하는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를 범한 다윗의 죄와 그 용서,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다윗의 왕위 계승 이야기 전통으로 마무리한다. 두 본문은 대체로 일치한다. 특히 첫 두 문장은 거의 일대일로 대칭한다. 다윗의 죄 용서에서 쓰인 히브리어 동사 “העביר” (헤에비르)는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나단의 입을 통해 이 문맥에서 쓰였다. 사무엘하의 칠십인역 본문⁵⁶에서 기원전 1세기 무렵의 개정본을 반영하는 기원후 4세기의 바티칸 사본(Cod. B)은 “παρεβίβασεν” (파르에비바센)으로 옮겼다. 그러나 그와 경쟁본 구실을 했을 이른바 안티오키아 본문(the antiochene text)을 반영하는 필사본들(M[mg]coxx[mg]c₂c₂)은 집회서와 같은 동사로 옮겼다.⁵⁷ 그러므로 이 경우 집회서 그리스어 본문이 이 본문의 전통에서 서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56 사무엘하의 본문 형태와 그 역사에 관해서는, J.-H. Kim, *Die hebräischen und griechischen Textformen der Samuel- und Königebücher. Studien zur Textgeschichte ausgehend von 2Sam 15,1-19,9* (BZAW 394;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9)을 참조하라.

57 A. Brooke/N. McLean (eds.), *The Old Testament in Greek according to the Text of Codex Vaticanus, supplemented from other uncial manuscripts. Vol. II, Part I, I and II Samue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27), 142.

“죄”(ἡμαρτία/ἁμαρτία)는 이 문맥과 관련한 시편 51(50):1-5에서 그대로 쓰이므로,⁵⁸ 집회서와 연관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어지는 뿔을 높인다는 표현은 앞서 5절을 다시 되풀이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왕권을 강조한다.

뒷부분의 두 문장도 같은 내용을 진술하지만, 구체적으로 세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난다. 첫째, 히브리어 본문에서 “왕국의 규례”(מִלְכוּת מֶלֶךְ, 호크 마를르쿠트; 참조, 삼상 15:28; 삼하 16:3)라고 한 표현을 그리스어 본문에서는 “왕들의 언약”(διαθήκην βασιλέων, 디아테켄 바실레온)으로 옮긴다. 흥미로운 점은 특히 집회서의 영웅 찬양시에서 “언약”이 자주 등장한다는 사실이다.⁵⁹ 그러므로 집회서의 그리스어 번역자가 다윗 언약의 전통을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수정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마지막 문장의 히브리어 본문에 있는 동사(יָצַח)가 그리스어 본문에는 없다. 히브리어 본문은 사무엘하 7장 16절 나단의 예언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쓰는데, 칠십인역은 앞선 문장의 동사로 대신하고 생략하였다. 셋째, 히브리어 본문은 다윗의 예루살렘 통치를 강조한 데 비해, 그리스어 본문은 “이스라엘”로 표현한다. 이는 아마도 그리스어 본문이 다윗 왕권의 온 이스라엘 범위를 강조하기 위해 수정하였다고 여겨야 할 것이다.

3. 맺음말

우리는 위에서 구약성경은 물론 신구약 중간기와 신약 이후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유대인들에게는 신앙적이고 민족적인 정체성을

58 참조. Corley, Sirach, 134.

59 참조. HR, 302a. 집회 44:11, 18, 20(×2), 22; 45:5, 7, 15, 17, 24, 25.

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전통들 가운데 하나인 다윗 전통이 신구약 중간기의 대표적인 지혜 문학인 집회서의 영웅 찬양시에서 어떻게 서술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약성경에서도 어떤 전통은 특정 언어 표현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하위 범주들이 다양한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상황에서 수용되고 발전해 나간다. 그런 경향은 집회서의 영웅 찬양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찾아볼 수 있었다.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자. 우선 집회서 영웅 찬양시의 다윗 전통은 다윗 찬양시는 다윗의 왕위 등극 이야기(2-7절), 예배자이자 성전제의 창시자로서 다윗 이야기(8-10절), 그리고 다윗 언약 이야기(11절)를 다룬다.

이 전통은 무엇보다 사무엘서의 언어 표현들을 기반으로 한다. 3-5절에서 그리는 다윗과 골리앗 일대일 전투 이야기는 특정 언어 표현들을 사무엘서와 그대로 공유한다(삼상 17:26, 33, 34-36, 45-47). 그리고 6절에서는 사무엘서에서 다윗과 관련하여 쓰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은 만만이로다”(삼상 18:7; 21:12; 29:5)가 직접 바탕이 되기도 한다. 또한, 11절에서는 나단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다윗 언약의 한 표현을 그대로 쓰기도 한다(삼하 7:16). 그러므로 이 다윗 찬양시의 저자는 분명히 사무엘서의 다윗 전통을 접하고 사용할 수 있었다. 더불어 다윗을 성전 제의에 기틀을 잡은 사람으로 찬양하는 8-10절은 여러 표현에서 역대상 16장, 23장, 25장에서 끌어 쓴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집회서의 저자는 역대기 본문에서 전하는 다윗 전통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집회서의 저자는 찬양시의 특성상 운문과 상징을 가진 집회서의 본문에는 시편 18편(삼하 22장)이나 89편과 같은 다윗 전통의 시편에서도 특정 언어 표현들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절에서 제의 전통을 생각나게 하는 “מורם”의 히필 형(비교. 레 4:8, 10, 19)이

다윗 제왕 시편인 시편 89편 20[19]절에서 쓰인 점이나 5절에서 쓰인 “오른손에 힘을 주심”(시 89:9), “뿔을 높이심”(시 18:3; 89:18)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집회서 저자는 다윗 전통을 구약성경의 다른 전통과 결합하여 새로운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가령, 2절에서 다윗의 선택을 구분된 제물로 비유한다거나, 4절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 돌리는 것을 히브리어 본문에서 요제로 비유하는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임금의 표시로 다윗이 머리에 터번을 썼다는 표현은 이사야 62장 3절과 연관될 수도 있다.

넷째, 집회서의 본문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서 제각각 분화하여 고유한 전통의 언어로 발전시켰다. 가령, 6절에서 다윗의 모습을 히브리어 본문은 전쟁 영웅으로 그리는 반면에, 그리스어 본문은 대관식의 모습이 생각나게 표현한다. 그리고 11후반절에서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다윗 언약이, 그리스어 본문에서는 집회서에서 즐겨 쓰는 언약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관찰은 당연히 다윗 전통에 제한되지 않는다. 집회서의 영웅 찬양시 전체를 구약성경 전통 관점에서 분석한다면, 구약성경 전통에 대한 신구약 중간 시대의 수용 양상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쿰란 공동체를 넘어 신약 공동체의 구약 전통 이해로 넘어가는 중요한 가교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훈, 『칠십인역 입문』(서울: 바오로딸, 2009).

_____, 『구약주석 어떻게 할 것인가? 구약 본문의 이해와 주석을 위한 길잡이』(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_____, “시편 151편의 11Q5와 칠십인역 본문 자료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www.kci.go.kr

- 29(2) (2023), 9-40.
- 박장훈, "Ben Sira's Use of the Adam Story in Gen 1-3", 『구약논단』 26(3) (2020), 202-207.
- 임봉대, "집회서 48:17-22의 히스기야 터널에 관한 고찰: 히브리어 본문과 칠십인역 본문 비교", 『성경원문연구』 46 (2020), 47-66.
- 천사무엘, "집회서의 이스라엘 영웅 찬양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0(1) (2005), 29-51.
- 알렉산더 아킬레스 피셔 지음/김정훈 외 옮김, 『구약성서 본문: 역사와 본문비평』 (서울: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2020).
- Aegg, Jr. Martin G. et al. (eds.), *The Dead Sea Scrolls Concordance. Vol. 3 The Biblical Texts from the Judean Desert* (Leiden/Boston: Brill, 2010).
- Beentjes, Pancratius C., *The Book of Ben Sira in Hebrew: A Text Edition of All Extant Hebrew Manuscripts and A Synopsis of all Parallel Hebrew Ben Sira Texts* (Leiden et al.: E. J. Brill, 1997).
- _____, "Reconstructions and Retroversions: Chances and Changes to the Hebrew Ben Sira Text," in *The Texts and Versions of the Book of Ben Sira: Transmission and Interpretation*, ed. Jean-Sebastien Rey/Jan Joosten, (Leiden · Boston: Brill, 2011), 23-35.
- Blass/Debrunner/Rehkopf,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82001).
- Brooke A./N. McLean (eds.), *The Old Testament in Greek according to the Text of Codex Vaticanus, supplemented from other uncial manuscripts. Vol. II, Part I, I and II Samue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27).
- Corley, Jeremy, *Sirach* (New Collegeville Bible Commentary;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13).
- Crenshaw, James L., *Sirach* (The New Interpreter's Bible 5; Nashville: Abingdon Press, 1997).
- Di Lella, Alexander, *The Hebrew Text of Sirach: A Text-critical and Historical Study* (Hague: Mouton & Co, 1966).
- Gesenius, W.,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Kiel: Springer, 182013).
- Hatch, E./H. A. Redpath, *Concordance to the Septuagint and the other Greek Versions of the Old Testament* (Clarendon Press 1897-1906; reprinted Grand Rapids: Baker Books, 1991).

- Kahle, Paul E., *The Cairo Geniza*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21960).
- Kim, J.-H., *Die hebräischen und griechischen Textformen der Samuel- und Königebücher. Studien zur Textgeschichte ausgehend von 2Sam 15,1-19,9* (BZAW 394;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9).
- Marttila, Marko, *Foreign Nations in the Wisdom of Ben Sira* (Berlin/Boston: De Gruyter, 2012).
- Muraoka, T.,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Septuagint*, (Louvain et al.: Peeters, 2009).
- Muraoka, T., *A Greek//Hebrew/Aramaic Two-Way Index to the Septuagint* (Louvain et al.: Peeters, 2010).
- Sauer, Georg, *Jesus Sirach/Ben Sira* (ATD Apokryphen Bd. 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0)
- Schechter, Salomon, “The Quotations from Ecclesiasticus in Rabbinic Literature”, *JQR* 3, 4 (1891), 682-706.
- Skehan, Patrick W./Alexander A. Di Lella, *The Wisdom of Ben Sira*, (AB 39; New York: Doubleday, 1997).
- Snaith, John G., *Ecclesiasticus* (The Cambridge Bible Commenta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4).
- Zeltin, Solomon, “The Ben Sira Scroll from Masada”, *JQR* 56, 3 (1966), 185-190.
- Ziegler, Joseph(ed.), *Septuaginta Vetus Testamentum Graecum Auctoritate Academiae Scientiarum Gottingensis editum*, vol. XII, 2 *Sapientia Iesu Filii Sirach* (Göttingen: Vasdenhoeck & Ruprecht, 21980).

검색어

벤 시라, 집회서, 영웅 찬양시, 다윗 전통, 외경

[ABSTRACT]

**A Study on the Praise of Israel's Great Ancestors in
Ecclesiasticus: Text-traditional Analysis of the Praise of
David (Sirach 47:2-11)**

Jong-Hoon Kim
Busan Presbyterian University

The primary focus of research related to Ecclesiasticus, also referred to as the “Wisdom of Ben Sira” or “Sirach’s Wisdom,” has been centered around the authenticity of the text. Studies have concentrated on analyzing variations found among existing manuscripts, translations, and reconstructions of the text. Ecclesiasticus contains what is known as the “Praise of Israel’s Great Ancestors” (44:1-50:12), which introduces 34 individuals and 5 groups (judges, Israelites, people of Judah, kings of Judah, twelve minor prophets), making it a crucial source for analyzing how the Hebrew Bible was used linguistically and from a tradition history perspective. In this study, the focus lies on analyzing the text of the “Praise of Israel’s Great Ancestors”, particularly the Davidic hymn (Sirach 47:2-11), and examining specific linguistic expressions from the Hebrew Bible tradition utilized by the author of the Ecclesiasticus to understand aspects of the Second Temple period Hebrew Bible tradition.

The Davidic tradition within the “Praise of Israel’s Great Ancestors” encompasses narratives concerning David's accession to the throne (verses 2-7), his role as a worshipper and initiator of temple sacrifices (verses 8-10), and the covenant with David (verse 11). This tradition is

www.kci.go.kr

primarily based on linguistic expressions found in the books of Samuel. Furthermore, the author of the Ecclesiasticus seems to have been influenced by specific linguistic expressions from Davidic Psalms such as Psalm 18 (2 Samuel 22) or Psalm 89, known for their poetic and symbolic nature, evident in the poetic and symbolic language of Ecclesiasticus. Additionally, the author combines the Davidic tradition with other traditions within the Hebrew Bible, such as the Priest-Tradition, offering new interpretations. Moreover, the text of the Ecclesiasticus evolved into its own language within Hebrew and Greek. Such observations are not limited to the Davidic tradition alone. Analyzing the entirety of the “Praise of Israel’s Great Ancestors” within the context of the Hebrew Bible tradition would provide valuable insights into the reception of the Hebrew Bible tradition during the intertestamental period.

key words

Ben Sira, Ecclesiasticus, Praise of Israel's Great Ancestors, David-Tradition, Apocrypha

투고일 : 2024년 04월 01일

심사일 : 2024년 04월 29일

게재 확정일 : 2024년 05월 07일

www.kci.go.kr